

# 신규간호사의 직무성취에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간호실무준비도의 매개효과 검증

김지수<sup>1</sup>, 박정해<sup>2\*</sup>

<sup>1</sup>가천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가천대학교 길병원

## The Significance of Mediation on the Effect for Self-Debriefing Experience to Nursing Practice Readiness on the Job Performance New Nurses

Ji Soo Kim<sup>1</sup>, Jung Hae Park<sup>2\*</sup>

<sup>1</sup>Gachon University, Professor

<sup>2</sup>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요약**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 대상 시뮬레이션 교육 자가 디브리핑 경험과 직무성취 관계에서 간호실무준비도가 매개역할을 조사한 횡단적 서술조사 연구이다. 병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경험한 신규간호사 4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모의교육 자가 디브리핑 경험( $\beta=.13, p=.006$ )과 간호실무준비도( $\beta=.17, p<.001$ )는 새로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의 간호성과와 관련이 있었다. 간호실무준비도는 자가 디브리핑 경험과 간호실무준비도와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다. 신규간호사의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자가 디브리핑 경험, 간호실무준비도 및 직무성취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가 디브리핑의 경험과 직무성취의 관계에서 간호실무준비도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긍정적이고 만족감이 높을수록 간호실무준비도 및 직무성취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간호실무준비도는 자가 디브리핑 경험과 직무성취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신규간호사가 스스로 성찰과정과 간호활동에서 자신감을 갖고 평가할 수 있음으로써 임상수행능력 향상과 함께 조직과 작업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Abstract** This was a cross-sectional narrative survey study that investigated the mediating role of nursing practice read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briefing experience and job achievement using simulation educators for new nurses. Data were collected from 409 newly licensed nurses who experienced simulation education during hospital orientation. Self-debriefing experience in simulation education ( $\beta=.13, p=.006$ ) and nursing practice readiness ( $\beta=.17, p<.001$ ) were associated with nursing achievements in newly licensed nurses. Nursing practice readiness also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briefing experience and nursing achievements.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the self-debriefing experience in simulation education could improve nursing practice readiness and nursing achievements among new nurses. The simulation education provided to new nurses should include the self-debriefing process, which could help the newly licensed nurses adapt to clinical reality.

**Keywords** : Simulation Training, Education, Nurse, Nursing, Self-debriefing

\*Corresponding Author : Jung Hae Park(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email: [junghae43@nate.com](mailto:junghae43@nate.com)

Received July 8,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Revised August 25,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 1. 서론

신규간호사는 학교에서 배운 학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임상현장에서 간호 실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되는 여러 의료환경과 상황 속에서 간호교육과정과 임상 현실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실무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1]. 신규간호사가 독립적으로 환자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현장 간호실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신규간호사는 간호실무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에 배치되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간호직무에 대한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2].

최근 임상현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신규간호사가 다양한 환경을 예측하고 통제하면서 독립적 간호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기존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성공적인 간호실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별도의 실무교육이 필요하다[3]. 이에 대한 방안으로 최근 병원에서는 신규간호사에게 시뮬레이션 교육을 점차 확대 제공하고 있다[4].

신규간호사 대상 시뮬레이션 교육은 사전브리핑(prebriefing), 시뮬레이션 운영(simulation running), 자가 디브리핑(self-debriefing)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가 디브리핑 경험 학습 후 평가와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의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다[5]. 특히 자가 디브리핑 경험은 학습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학습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6]. 따라서,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가 디브리핑을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7]. 몇몇 선행연구에서 신규간호사 대상 시뮬레이션 교육이 지식,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수행능력, 간호 수행 자신감 등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4,8], 신규간호사 대상의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자가 디브리핑의 효과에 대한 근거(evidence)는 부족한 실정이다.

신규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간호실무준비도가 필요하다. 간호실무준비도는 업무 흐름에 대한 이해와 상황판단능력, 간호활동 수행능력, 우선순위 결정능력 등의 인지적 차원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환자간호에 대한 자신감, 스트레스 관리 등의 정의적 차원으로 구성된다[2]. 따라

서 간호실무준비도는 신규간호사의 적응과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핵심적 요소이다. 신규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초기 전환 단계에서 현장 업무에 대한 점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간호실무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9]. 한편 신규간호사는 충분한 간호실무준비도를 통해서 직무성취를 이룰 때, 성공적인 임상역할 전이가 가능해진다[9]. 직무성취는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의해 기대되는 직무수행의 결과로서, 일에 대한 즐거움, 흥미, 성취감, 만족, 자부심, 가치관과의 부합을 내포하고 있다[10]. 간호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직무성취가 향상되므로[11], 신규간호사에게 제공하는 자가 디브리핑 경험과 간호실무준비도는 직무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신규간호사의 적응과 역할 전이를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대두되고 임상현장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 [12], 직접적인 학습과 학습 이후 효과평가하고 재설계하는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13]. 그중에서도 자가 디브리핑 경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14], 임상실무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15]. 결과적으로 신규간호사 스스로 성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 간호 활동에서 자신감이 높아짐과 함께 자신을 평가할 수 있고 임상 수행능력 향상과 직무환경에 적응하고 더불어 조직에 적응함으로써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임상실무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자기 주도적으로 극복하고 현장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박현정(2018)은 자가 디브리핑 경험과 관련한 연구에서 신규간호사들이 성취감, 당황, 두려움 순으로 경험의 영향을 제시하였고, 자기주도적 자가 디브리핑 경험시 직무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8,9,11], 신규간호사에게 제공되는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직무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자가 디브리핑 경험과 직무성취 관계에서 간호실무준비도가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Fig. 1). 본 연구를 통해 신규간호사의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자가 디브리핑 경험의 효과를 규명하여, 효율적인 신규간호사 시뮬레이션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규간호사의 자가 디브리핑 경험, 간호실무준비도와 직무성취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가 디브리핑 경험과 직무성취의 관계에서 간호실무준비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시뮬레이션 자가 디브리핑 경험, 간호실무준비도와 직무성취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횡단적 서술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은 직무 오리엔테이션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입사 후 12개월 이내 1회 받은 경험이 있는 12개월 미만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졸업 후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신규간호사로 입사했고,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그룹 토론과 동료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자가 디브리핑 경험 과정을 경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으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4, 검정력 .80, 예측변수 8개를 투입하여 분석한 샘플수는 384명이 대상자가 산출되었다. 하지만 탈락률 약 10%를 고려하여 총 43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후 응답이 불충분한 19명의 설문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2명의 설문을 제외한 최종 409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자가 디브리핑 경험

자가 디브리핑 경험 측정은 Reed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Debriefing Experience Scale[16], Ha와 Lim이 번역한 자가 디브리핑 경험 도구[13]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대상자와 관련이 없는 하위요인 1개(학습과의 연계성 8문항)는 제외하고, 생각과 느낌 공유 4문항, 동료 역량 5문항, 동료 적절성 3문항의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 디브리핑 경험에서 긍정적 경험과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Reed[16]의 연구 문항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Ha와 Lim[17]의 연구에서는 .95,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 2.3.2 간호실무준비도

Kim[18]이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간호실무준비도 측정 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고, 총 35문항으로 간호수행 16문항, 전문적 가치와 태도 8문

항, 환자 중심적 태도 8문항, 자기조절 3문항, 협력적 대인관계 3문항의 5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실무준비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8]의 연구 문항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 2.3.3 직무성취

직무성취 측정은 Jung[10]이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직무성취 측정 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고, 총 8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직무에서 성취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ng[10]의 연구 문항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는 .93였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 2.4 자료 수집 및 연구 윤리

자료 수집을 위해 일 광역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2곳의 대학병원을 편의 추출하였고,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병원 선정은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운영을 확인하고 실제 시행하고 있는 신규간호사 시뮬레이션 교육 중 공통으로 보고하고 있는 교육방법(운영 만족도, 공통 핵심 기본간호술)과 교육내용(심폐소생술, 간헐적 위관영양, 유치도뇨, 기관내 흡인)을 확인하고 편의 추출하였다. 교육 운영은 각 모듈당 시뮬레이션 당 약 10분 정도(5명씩 1조) 운영하였고, 시뮬레이션 교육이 끝난 후에는 교육내용과 이해도를 설문 조사하고, 참가자들이 동료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고 탐색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디브리핑 과정을 모두 시뮬레이션 교육에 포함하고 있었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blinded)의 승인을 받았다.

### 2.5 분석방법

연구 대상자 자료 수집은 구글 설문 양식을 이용하여 설문내용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각 병원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협조와 대상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여, 총 430명의 설문 응답이 완성된 후에 연구자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코드화 이후 분석하였다. 자가 디브리핑 경험, 간호실무준비도, 직무성취 문항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로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은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간호실무준비도와 직무성취의 차이는 각 집단의 정규성 확인 후에 Mann-Whitney test, Kruskal wallis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가 디브리핑 경험, 간호실무준비도와 직무성취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직무성취에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간호실무준비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PSS PROCESS macro ver 3.5 model 4를 이용하였다. 직무성취에 미치는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시행하였다. 분석은 SPSS window ver 25.0 program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디브리핑 경험, 간호실무준비도와 직무성취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디브리핑 경험, 간호실무준비도, 직무성취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성별은 91.0%(372명)가 여성이었고, 81.4%(333명)가 25세 미만이었다. 임상경력은 59.9%(245명)가 6개월 미만이었으며, 60.6%(248명)가 병동간호사였다. 96.8%(396명)는 직무 오리엔테이션의 시뮬레이션 교육 이외에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직무 오리엔테이션의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자가 디브리핑 경험 횟수는 7-10회(38.9%, 159명)가 가장 많았다. 자가 디브리핑 경험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z=-2.39, p=.017$ ), 직무성취는 임상경력 6개월 미만과 6~12개월 미만 신규간호사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z=-2.56, p=.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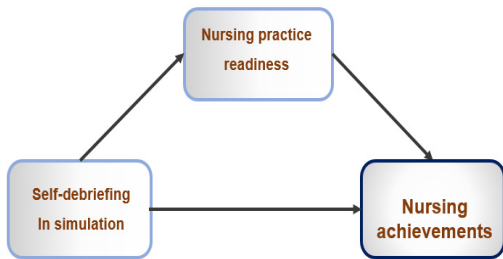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Table 1. Characteristics and Self-debriefing Experience, Nursing Practice Readiness, Nursing Achievements

Variables	n (%)	Self-debriefing experience		Nursing practice readiness		Nursing achievements		
		M±SD*	z (p)	M±SD	z (p)	M±SD	z (p)	
Gender	Women	372 (91.0)	35.90±7.68	-2.39 (.017)	94.80±18.39	-0.85 (.394)	23.77±6.51	-0.62 (.534)
	Men	37 (9.0)	39.16±7.50		97.65±17.56		24.49±7.33	
Age (year)	<25	333 (81.4)	36.20±7.64	-0.03 (.973)	95.30±18.68	-0.75 (.456)	23.99±6.55	-1.23 (.217)
	25≤	76 (18.6)	36.17±8.09		93.97±16.66		23.17±6.73	
Clinical career (month)	<6	245 (59.9)	36.08±7.81	-0.44 (.661)	93.78±18.51	-1.77 (.076)	23.12±6.86	-2.56 (.010)
	6~<12	164 (40.1)	36.37±7.57		96.96±17.90		24.90±6.02	
Work unit	General ward	248 (60.6)	36.54±7.71	1.44 (.486)	94.62±17.85	2.74 (.254)	24.29±6.32	5.28 (.071)
	Intensive care unit/emergency department	83 (20.3)	35.90±7.11		97.95±18.43		23.89±7.14	
	Operation room	78 (19.1)	35.38±8.33		93.35±19.50		22.33±6.64	
Previous experience of simulation education	Have	396 (96.8)	36.13±7.67	-1.11 (.268)	94.89±18.32	-0.87 (.386)	23.81±6.61	-0.42 (.672)
	Not	13 (3.2)	38.08±8.97		99.92±18.11		24.62±5.99	
Frequency of self-debriefing	1-3	64 (15.6)	35.16±8.28	4.81 (.307)	94.14±17.59	0.98 (.912)	23.78±6.65	6.08 (.193)
	3-6	68 (16.6)	35.10±7.67		95.85±19.66		22.19±6.82	
	7-10	159 (38.9)	36.73±7.89		95.13±18.43		24.04±6.40	
	11-13	85 (20.8)	36.06±7.25		94.00±17.65		24.19±6.56	
	14≤	33 (8.1)	38.21±6.66		97.55±18.69		25.42±6.62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 3.2 자가 디브리핑 경험, 간호실무준비도와 직무성취의 상관관계

분석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자가 디브리핑 경험은 60점 만점에 평균 36.19±7.71이었고, 간호실무준비도는 140점 만점에 95.05±18.31, 직무성취는 40점 만점에 23.84±6.58로 나타났다. 자가 디브리핑 경험은 간호실무준비도는 .17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p<.001$ ), 자가 디브리핑 경험은 직무성취와 .17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p=.001$ ), 간호실무준비도와 직무성취는 .21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p<.001$ ).

Table 2. Mean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Study Variables

Variables	M±SD†	Self-debriefing experience	Nursing practice readiness	Nursing achievements
		r (p)		
Self-debriefing experience	36.19±7.71	1		
Nursing practice readiness	95.05±18.31	.17*	1	
Nursing achievements	23.84±6.58	.17*	.21*	1

†M±SD ; mean±standard deviation, \* p-value <.01

### 3.3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직무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간호실무준비도의 매개효과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직무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간호실무준비도의 매개효과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직무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간호실무준비

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19]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임상경력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자가 디브리핑 경험은 간호실무준비도에 .17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또한, 2단계에서 자가 디브리핑 경험은 직무성취에 .16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자가 디브리핑 경험( $\beta=.13, p=.006$ )과 간호실무준비도( $\beta=.17, p<.001$ )가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된 3단계에서는 두 변수 모두 직무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 디브리핑 경험의 영향은 2단계에서 .16에서 .13로 감소하여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간호실무준비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과 상한값(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이 0.03~.008,  $\beta$ 는 .048로 나타나,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직무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간호실무준비도가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신규간호사의 자가 디브리핑 경험은 간호대학생과 비교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가 디브리핑 경험은 시뮬레이션 교육의 학습효과가 완성되는 단계이지만[16], 간호사 대상 자가 디브리핑 경험에 대하여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최근 신규간호사 대상 시뮬레이션 교육이 확대되

Table 3. Association of Self-debriefing Experience and Nursing Practice Readiness with Nursing Achievements

Independant variables	Dependant variable Nursing practice readiness Step 1				Nursing achievements Step 2				Nursing achievements Step 3			
	$\beta$	S.E†	t	p	$\beta$	S.E	t	p	$\beta$	S.E	t	p
Clinical career (< 6 months)*	-.08	1.82	-1.68	.093	-.13	0.65	-2.67	.008	-.12	0.64	-2.41	.017
Self-debriefing experience	.17	0.12	3.55	<.001	.16	0.04	3.37	<.001	.13	0.04	2.75	.006
Nursing practice readiness	-	-	-	-	-	-	-	-	.17	0.02	3.54	<.001
R <sup>2</sup>	.04				.04				.07			
F (p)	7.83 (<.001)				9.42 (<.001)				10.64 (<.001)			

\* Dummy variable (1 = < 6 months, 0 = 6~<12 months)

†SE = standard error

고 있는 과정에서, 자가 디브리핑 경험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추후 신규간호사 시뮬레이션 교육을 개선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자가 디브리핑 경험은 남자 간호사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20]에서 성별에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규간호사의 직무성취는 근무경력이 “6개월 이하”인 경우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경우에 직무성취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근무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간호 실무업무에 익숙해지고, 이로 인해 직무성취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11]. 하지만,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1년 미만 신규간호사의 직무성취가 1년 이상의 경력간호사보다 직무성취 수준이 더 높았다[10]. 또한, 연구대상과 경력에 따라 직무성취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울수록 신규간호사의 간호실무준비도와 직무성취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몇몇 선행연구들이 신규간호사 대상의 시뮬레이션 교육 효과를 보고하였으나[4,8], 자가 디브리핑 경험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간호실무준비도와 직무성취에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일에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는 직무성취는 선행연구[10]에서 간호사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직무성취 향상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자가 디브리핑을 경험하고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신규간호사가 자신의 경험을 토론해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필요하다[16]. 신규간호사에게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직무성취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자가 디브리핑 경험 과정을 포함하고, 가능한 충분한 교육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가 디브리핑 경험과 직무성취의 관계에서 간호실무준비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신규간호사의 임상경력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규간호사의 자가 디브리핑 경험은 간호실무준비도 향상에 영향을 주었고, 간호실무준비도가 향상될수록 직무

성취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 학생은 학교에서 간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 실무를 준비하고, 임상현장에서 전문적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지만, 현실에서 신규간호사들은 이론교육과 의료현장의 차이를 실감하고 독립적으로 환자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임상현장의 간호 실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21]. 이는 간호실무준비도가 부족한 신규간호사는 간호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며[22], 미숙한 업무수행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게 된다[23].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은 임상현장에서 신규간호사가 독립적으로 환자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실무준비도에 충분히 효과적이어야 한다[2].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자가 디브리핑을 경험하는 것이 신규간호사의 간호실무준비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에게 시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자가 디브리핑 경험 과정을 포함하여 충분한 경험 공유와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신규간호사의 간호실무준비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다양한 환경과 여건이 존재하는 곳으로 신규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역할은 제각각 상이함이 존재하기에 시뮬레이션 교육 자가 디브리핑 경험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차별화되고 세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배 간호사들의 공부정적인 자가 디브리핑 경험을 신규간호사를 위한 디브리핑 구성[12] 및 운영 과정[13]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간호사 현실을 반영하고 부족한 점들을 시뮬레이션 자가 디브리핑 경험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병원들의 상호 연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병원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신규간호사들의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14]하고 직무성취를 증진[15]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마다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뮬레이션 자가 디브리핑의 교육 내용 및 과정[12]이 상호 공유되고 이러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면, 향후 부서나 업무에 따른 교육 내용의 차별화 등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자가 디브리핑 경험의 효과를 규명한 점에서 간호교육의 지식 확장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가 일개 지역의 2곳 병원에서만 편의추출 되었기 때문에 다

른 규모의 병원과 지역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둘째, 간호실무준비도와 직무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혼란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수와 시뮬레이션 관련 변수만을 고려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가 디브리핑 경험 측정도구는 간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현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적용한 본 연구결과와 해석에는 제한이 있다. 넷째, 신규간호사 대상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시점이 다소 상의하여 해석에 제한이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자가 디브리핑 경험, 간호실무준비도 및 직무성취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가 디브리핑의 경험과 직무성취의 관계에서 간호실무준비도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긍정적이고 만족감이 높을수록 간호실무준비도 및 직무성취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간호실무준비도는 자가 디브리핑 경험과 직무성취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자가 디브리핑 경험을 포함하는 것은 간호실무준비도와 직무성취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신규간호사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가 디브리핑 과정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 디브리핑 경험의 형태와 구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기 디브리핑 경험의 내용을 제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자가 디브리핑 경험이 추구하는 세부 목표가 타당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M. W. Woo, S. A. Newman,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from nursing students to newly graduated registered nurses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7, No.1, pp.81-90, 2020. DOI: <https://doi.org/10.1016/j.iinss.2019.11.002>
- [2] J. H. Kim, "A Qualitative analysis of nursing practice readiness for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21, No.2, pp.105-112, 2020. DOI: <https://doi.org/10.22284/qj.2020.21.2.105>
- [3] J. J. Lee, C. L. Clarke, M. N. Carson, "Nursing students' learning dynamics and influencing factors in clinical context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29, pp.103-109, 2018.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7.12.003>
- [4] H. J. Park, "Effects of simulation practice education on the clinical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confidence of nursing process in new graduated nurses",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6, No.1, pp.45-56, 2018. DOI: <https://doi.org/10.17333/JKSSN.2018.6.1.45>
- [5] M. K. Fey, D. Scrandis, A. Daniels, C. Haut, "Learning through debriefing: students' perspectives",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10, pp.249-256, 2014. DOI: <https://doi.org/10.1016/j.ecns.2013.12.009>
- [6] M. J. Bullard, A. J. Weekes, R. J. Cordle, S. M. Fox, C. M. Wares, A. C. Heffner, et al, "A mixed methods comparison of participant and observer learner roles in simulation education", *AEM Education and Training*, Vol.3, No.1, pp.20-32, 2018. DOI: <https://doi.org/10.1002/aet.2.10310>
- [7] M. Yu, M. R. Yang, B. R. Ku, J. S. Mann, "Effects of virtual reality simulation program regarding high-risk neonatal infection control on nursing students", *Asian Nursing Research*, Vol.15, No.3, pp.189-196, 2021. DOI: <https://doi.org/10.1016/j.anr.2021.03.002>
- [8] Y. H. Lee, H. Y. Ahn, "The effects of simulation education for new nurses on emergency management using low-fidelity simulator",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3, pp.331-343,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3.331>
- [9] A. Baumann, M. Crea-Arsenio, M. Hunsberger, B. Fleming-Carroll, M. Keatings, "Work readiness, transition, and integration: the challenge of specialty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75, No.4, pp.823-833, 2019. DOI: <https://doi.org/10.1111/jan.13918>
- [10] H. K. Jung, *The effect of nurse'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change jobs and career drop*,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buk, Korea, pp.1-3, 2016.
- [11] Y. H. Yom, "Analysis of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based on the job demand-resource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3, No.1, pp.114-122, 2013. DOI: <http://dx.doi.org/10.4040/ikan.2013.43.1.114>
- [1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Handbook for Universities*, 2015, pp.172. URL: <http://www.kabone.or.kr/m/notice/list/view.do?num=496>
- [13] K. S. Jang, K. H. Ryu, H. M. Kang, I. H. Kang, J. H. Kwo, et al., "The Effects of a Simulation-Based High Flow Nasal Cannula Oxygen Therapy Training Program on the Knowledge, Clinical Performance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Journal*

-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6, No.1, pp.47-58, 2020.  
DOI: <https://doi.org/10.22650/JKCNR.2020.26.1.47>
- [14] S. Boet, M. D. Bould, B. Sharma, S. Revees, V. N. Naik, E. Tribby, et al., "Within-team debriefing versus instructor-led debriefing for simulation-based educa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nals of Surgery*, Vol.258, No.1, pp.53-58, 2013.  
DOI: <https://doi.org/10.1097/SLA.0b013e31829659e4>
- [15] K. Couper, G. D. Perkins, "Debriefing after resuscitation", *Current Opinion in Critical Care*, Vol.19, NO.3, pp.188-194, 2013.  
DOI: <https://doi.org/10.1097/MCC.0b013e32835f58aa>
- [16] S. J. Reed, "Debriefing experience scale: development of a tool to evaluate the student learning experience in debriefing",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8, No.6, pp.211-217, 2012.  
DOI: <https://doi.org/10.1016/j.ecns.2011.11.002>
- [17] E. H. Ha, E. J. Lim, "Peer-led written debriefing versus instructor-led oral debriefing: using multimode simulation",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18, pp.38-46, 2018.  
DOI: <https://doi.org/10.1016/j.ecns.2018.02.002>
- [18] J. H. Kim, *Development of nursing practice readiness scale for new graduate nurse*. Ph.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pp.3-5, 2020.
- [19]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2013.
- [20] J. Y. Seo, E. H. Choi, K. E. Lee, "Effect of role rotation experience on learning flow, self leadership and debrief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simulation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7, pp.423-430,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7.423>
- [21] S. O. Kim, J. S. Kim, "Association of work environment and resilience with transition shock in newly licensed nurses: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30, No.7-8, pp.1037-1045, 2021.  
DOI: <https://doi.org/10.1111/jocn.15649>
- [22] Y. M. Leong, J. Crossman, "New nurse transition: Success through aligning multiple identities", *Journal of Health Organization and Management*, Vol.29, No.7, pp.1098-1114, 2015.  
DOI: <https://doi.org/10.1108/JHOM-02-2014-0038>
- [23] M. S. So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mpowerment, nurs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5, pp.2304-2314,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304>

김 지 수(Ji Soo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아동건강증진

박 정 해(Jung Hae Park)

[정회원]



- 2014년 8월 :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21년 8월 :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07년 4월 ~ 현재 : 가천대학교 길병원 주임간호사

<관심분야>

간호교육, 간호실무, 노인간호